



정의의 종

SNU Law Newsletter
2009년 1월 vol.13



2009학년도 법학대학원 신입생 선발과 설명회

지난 2008년 12월 5일, 서울대학교 법학대학원의 첫 신입생 입학전형 결과가 발표되었다. 총 1122명의 지원자 가운데 150명을 선별하였으며, 그 중 비법학사는 모두 102명이었다.

그 다음날인 12월 6일에는 이들 신입생을 대상으로 한 합격자 설명회가 있었다. 백주년 기념관에서 오후 4시30분부터 열린 1부 순서에서 김건식 법학대학원장의 환영사와 김용준 전 헌법재판소장의 기조연설을 들은 신입생들은 교수회관으로 이동하여 열린 2부에서 저녁식사를 하면서 김정국 법대동창회장 및 각계를 대표하는 동창대표들의 환영사를 들었다.

사진 :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합격자 설명회 전경 2008년 12월 6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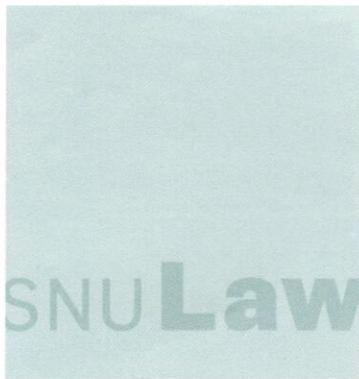
서울시 관악구 관악로 599
서울대학교 법학대학원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tel. 02-880-7530
URL. <http://law.snu.ac.kr>

발행인: 김건식
편집인: 정상조

contents

커버스토리	1
일반소식	2
학술소식	3
교수동정	4
신간소개	5
최고지도자과정	6
외부과정	7
발전기금소식	8

일반소식



지난 2008년 11월 24일 백주년기념관 주신홀에서 양창수 대법관 초청강연이 열렸다. '법학에서의 이론과 실천'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날 강연회에는 300여 명의 청중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양창수 대법관 초청강연

양 대법관은 과거 우리 법학이 지나치게 일본, 독일에 치우쳐 있었다고 언급하고, 독일 유학시절 가장 크게 깨달은 것이 '우리 민법은 독일과 많이 다르다는 것'이었다며, 학문세계에서는 다양한 조류의 견해들이 서로 영향을 주고 받으며 방향을 설정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양 대법관은 후학들이 법학 발전에 기여해 주기를 바라는 당부의 말을 잊지 않았다.

서울법대, 전국대학법학도서관협의회

회장교로 선출

서울법대가 지난 11월 21일 백주년기념관 주산홀에서 개최된 전국대학법학도서관협의회 창립총회에서 초대 회장교로 선출됐다. 이 협의회는 대학 법학도서관 상호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법학교육 및 연구에 기여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협의회는 향후 법학도서관간 업무협조, 정보자료의 상호이용, 공동조사연구, 직원교육, 국내외 관련 단체와의 협력사업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협의회 사무국은 서울법대 법학도서관 내에 설치된다.

법학전문박사과정

신입생 선발

서울대학교 법학대학원에서는 법학석사학위 소지자를 대상으로 법학전문박사과정 신입생을 모집하였다. 2008년 12월 22일에서 26일에 걸쳐 인터넷으로 입학원서를 접수받고 2009년 1월 7일에 면접 및 구술고사를 시행하였으며, 1월 16일에 8명의 법조인을 최종합격자로 발표하였다. 전형평가요소는 성적, 학위 논문, 수학계획서, 추천서 등을 평가한

서류평가 점수 (100점 만점)과 면접 및 구술고사 점수(100점 만점) 총 200점으로 구성되어 있다.

2008년 한국과 표현의 자유

학술대회

2008년 12월 13일 백주년기념관 소강당에서 2008년 한국과 표현의 자유 학술대회가 열렸다. 2008년에는 촛불시위나 인터넷에 대한 규제 등이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표현의 자유가 입법, 행정, 사법은 물론 시민사회, 언론 전체의 중심적 주제가 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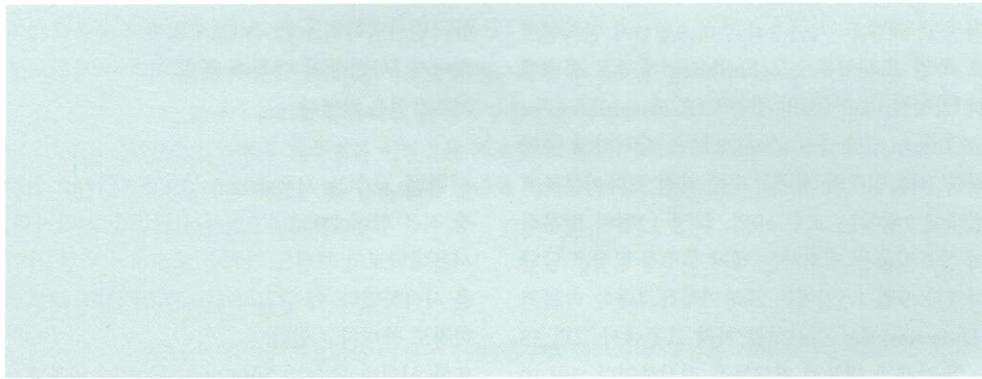
이에 표현의 자유를 둘러싼 여러 쟁점들을 법학적으로 점검하면서, 표현의 자유의 확장과 그 남용 방지라는 방향성을 진지하게 토론하고자 이번 학술대회를 열게 되었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1부와 2부에 걸쳐 각 4명씩 발표하고 3부에서 토론을 가졌는데, 1부에서 한 인섭 교수가 '촛불시위를 둘러싼 각종 표현과 규제를 보는 시각'을, 조국 교수가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집회시위 선진화 방안"을 비판한다'를 발표했고 2부에서 전종의 교수가 "선거운동과 표현의 자유"—현법재판소 판례를 중심으로 심사기준의 검토'를 발표했다.

■ 법학대학원 추후 일정

1월 5일-7일	합격자 등록
1월 9일-23일	제1차 입학전 법학강좌 김재형 교수 - 민법총칙, 계약 이상원 교수 - 형법특강
2월 2일-16일	제2차 입학전 법학강좌 송석윤 교수 - 헌법 남효순 교수 - 물권, 불법행위
2월 16일	로스쿨 민법교재 워크숍
2월 17일-18일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2월 17일-18일	법대 교수 학사협의회
2월 23일-25일	신입생 수강신청
3월 2일	입학식

학술소식



서울대학교 경쟁법센터

창립기념 학술심포지엄

지난 11월 28일, 코엑스 인터콘티넨탈 호텔에서 서울대학교 경쟁법센터 창립기념 학술심포지엄과 리셉션이 열렸다.

제1부 학술심포지엄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서동원 부위원장과 한국경쟁법학회장 정호열 교수의 축사에 이어 '시장경제의 선진화방안'이라는 주제로 한양대 법대 이호영 교수와 서강대 경제학부 전성훈 교수가 발표한 다음, 권오승 교수의 사회로 종합토론을 진행했다. 제2부에서는 기념만찬이 이어졌다.

서울대학교 경쟁법센터(센터장 권오승 교수)는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시장경제의 선진화가 절실히 필요하다는 점에서,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질서의 확립을 통하여 시장경제의 선진화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경쟁법과 정책에 대한 연구와 토론, 교육과 출판 및 국제교류 등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해나갈 계획이다.

서울대학교 국제통상 거래법 센터 창립

서울대학교 국제통상 거래법센터가 설립되어 국제 금융과 국제투자 및 기타 국제거래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는 국제경제법과 국제통상법을 연구하게 되었다. 이 센터에서는 국제거래의 국제경제법적인 측면과 상사거래로서의 측면을 종합적으로 연구하는 기능을 할 예정이다.

초대 센터장으로는 신희택 교수가 취임하여 조직과 운영 등 여러 가지 준비작업을 진행중이고, 국제통상 및 거래법을 전공한 석광현, 장승화, 고학수, 이재협 교수 등이 운영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서울대학교 공익산업법센터

제3회 국제학술대회

2008년 10월 17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방송통신 시장에서 망중립성 관련 규제의 쟁점과 해법 모색'을 주제로 공익산업법센터 제3회 국제학술대회가 열렸다.

이번 학술대회는 총 5개의 세부주제로 나누어 발표와 토론이 진행되었다. 각각 미국, 유럽과 영국, 독일, 유럽과 프랑스, 우리나라의 경우의 관련 주제를 다루었다.

서울대학교 공익산업법센터는 2006년 5월 개소기념 학술대회를 시작으로 활발한 학술활동을 전개해오고 있다. 이번까지 3회의 국제학술대회를 포함하여 총 20회의 학술세미나를 개최한 바 있고, 6권의 CeLPU총서를 출간하였으며, 2008년 5월부터는 정기간행물인 '경제규제와 법'을 발간하고 있다.

서울대학교 기술과법센터

서울대학교 기술과법센터에서는 2008년 12월 14일과 27일 두 차례에 걸쳐 국제컨퍼런스를 개최하였다. 각각 2008년도 제7회와 제8회 국제컨퍼런스가 되는 이번 행사에서는, "특허권 소진에 관한 국제동향-Recent Developments in Patent"과 "유럽에서의 지적재산권 동향"을 주제로 발표가 이어졌다.

교수동정



최종고 교수



신동운 교수



윤진수 교수



신희택 교수



정궁식 교수



권영준 교수

최종고 교수는 지난 3월부터 9월까지 안식년으로 독일 프라이부르크(Freiburg)대학교 법대에서 '국제적 비교에서의 법철학'(Rechtsphilosophie im Internationalen Vergleich)을 강의하고 돌아왔다. 서울법대와 자매관계를 가진 프라이부르그 법대에 7월에는 교수 10인, 학생 12인이 방문하여 심포지움을 개최하는 데에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였다. 9월 1~5일에는 프라이부르그대학 박물관(Uniseum)에서 전시회를 가져 그곳에서 그린 33 점의 작품과 대표적 저서들을 전시하였다. 9월 10일에는 파사우(Passau)에서 개최된 독일법사학회(Deutscher Rechtshistorikertag)에서 '동아시아 법사에서의 보통법의 융통과 몰락'(Aufbau und Verfall des Ius Commune in der Ostasiatischen Rechtsgeschichte)이란 기조강연을 하였다. (그 요지가 Frankfurter Allgemeine Zeitung, 2008.9.18 일자에 보도되었다). 11월 19일에는 서울대 미술관에서 열리는 <윌리엄 블레이크전>의 일환으로 '블레이크의 <욥기>와 괴테의 <파우스트>'를 강연하였다.

신동운 교수는 2008년 5월 18일 일본 고베에서 열린 일본형법학회 연례 학술대회에서 일본형법학회의 명예회원에 추대되었고, 한국의 형사사법개혁에 관하여 기념강연을 행하였다. 2008년 11월 20일에는 한국범죄방지재단이 형사법 및 형사정책 분야 전반의 학자들을 대상으로 시상하는 한국범죄방지재단 학술상의 제1회 수상자로 수상한 바 있다.

윤진수 교수는 2008년 7월 독일 프라이부르크에서 열린 서울법대 - 프라이부르크 법대 합동심포지엄에서 "Die Lehre von der Geschäftsgrundlage in Korea"라는 제목으로 발표하였다. 9월 19일에는 일본 동경에서 열린 서울법대, 북경대 법대, 동경대 법대 제2차 Beseto Conference에서 "CEDAW, CRC and the Korean Family Law"를 발표했다. 같은 달 대법원에서 열린 대한민국 사법 60주년 기념 학술 심포지움『사법부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에서 "가사재판편"을 발표했고, 10월 24일 건국대학교에서 열린 한국상사법학회 •

한국민사법학회 • 한국비교사법학회 공동학술대회에서 "사법상의 단체와 헌법"이라는 제목으로 기조강연을 하였다.

신희택 교수는 서울대학교 상표관리위원회 위원장 직을 맡아 2008년 7월부터 활동을 시작하여, 서울대학교의 브랜드 가치를 제고하기 위한 작업을 시작하였다. 이 위원회에는 본교 정상조 교무부 학장도 참여하고 있다.

또한 신희택 교수는 2008년 10월에 "국민경제자문회의"의 위원으로 임명되었다. 이 기구는 헌법상 대통령에 대한 자문기구로서 27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위원중 법률가는 신희택 교수가 유일하다. 최근 초유의 세계적 금융위기를 맞아서, 우리 정부가 취하여야 할 여러가지 위기극복대책과 국제적인 협조체제 구축 등에 관하여 자문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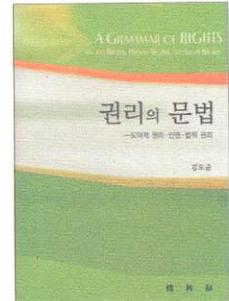
정궁식 교수는 2009년 1월 19일 오후 5시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교수회의실에서 열린 '제1회 영산법사학 학술상' 시상식에서 우수학술상을 수상했다. 이는 한국법사학회가 주최한 것으로, 정궁식 교수는 수상 연구에서 현존 하는 판결문 가운데 가장 오래된 것으로 알려진 '1517년 안동부 결송입안(安東府 決訟立案)'을 사료에 입각해 번역·분석했다.

권영준 교수는 2009년 1월 22일 서울 강남구 메리츠타워에서 한국법학원이 시상하는 제13회 법학논문상을 수상했다. 논문 제목은 '민사재판에 있어서 이론, 법리, 실무'이다. 이진성 심사위원장은 조교수의 논문에 대해 "실무자에서 연구자가 된 본인의 특수성을 잘 살려서 법리와 실무, 이론의 유기성을 제고해야 할 필요성을 주제로 삼았다"며 "독창적이고 참신하다"고 평가했다.

신간소개

권리의 문법: 도덕적 권리, 인권, 법적 권리 김도균 / 박영사

김도균 교수는 이 책에서 권리 개념에 분석적으로 접근하여 '권리의 문법(A Grammar of Rights)'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제1장에서 권리를 갖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아보고, 이어 제2장에서는 권리의 본질과 근거에 대해 논하면서 의사설과 이익설을 비교한다. 제3장에서는 도덕적 권리와 정의, 인권 등의 관계와 그 보장에 대해 설명한다. 제4장은 법적 권리와 이익형량이란 제목으로 권리 사이의 충돌과 권리와 공익 사이의 충돌에 대해 이야기하였다.



건설법의 이해 김종보 / 박영사

김종보 교수가 이번에 발간한 '건설법의 이해'는 1999년부터 여러차례 개정을 거쳐 3판에 이른 '건축행정법'이라는 제목의 교과서를 잇는 책이다. 건축과 개발 사업에는 복잡다각한 법률들이 종합적으로 관련되어 있지만, 그 관계를 일목요연하게 이해하는 것은 쉽지 않아서, 건설업에 종사하는 실무자뿐 아니라 법률가들도 이를 파악하는 데 많은 시간이 걸리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대한민국의 건설시장이 질적 으로나 양적으로 이미 선진국 수준에 도달한 현실에서, 전문가들이 법과 제도를 잘 이해하여 법치주의와 법률서비스의 수준을 한 단계 발전시킬 수 있게 하고자 이 책을 저술하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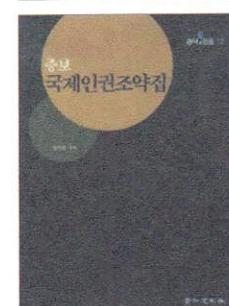
배신(21세기를 사는 지혜) 조국 외 / 한겨례출판

이 책은 2008년 3월 24일에서 4월 8일에 걸쳐 열렸던 '한겨례21' 창간 14돐 기념 '제5회 인터뷰 특강'을 정리한 것이다. 김용철 변호사, 정신과 전문의 정혜신, 논객 진중권, 뇌과학자 정재승, 성공회대 NGO대학원 교수 정태인, 서울대 법대 조국 교수 등이 이 시대의 배신에 대해 이야기한다. 특히 조국 교수는 '교수와 법률가의 배신- 그들은 어떻게 한국을 어지럽혀놓았나'라는 주제로 법의 정신을 배신하는 법률가들과 학생을 배신하는 폴리페셔를 비판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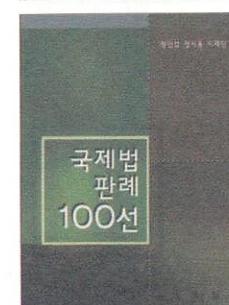
국제인권조약집(증보)(공익과인권13) 정인섭 / 경인문화사

이 책은 현재 국제사회에서 활용되고 있는 약 60여 건의 중요 국제인권조약과 선언을 모아 번역한 책이다. 중요한 조약의 경우는 영문본도 함께 수록하였다. 제1부 국제인권장전, 제2부 차별과 착취로부터의 보호, 제3부 반인도적 행위 등으로부터의 보호, 제4부 취약집단의 보호, 제5부 난민 및 무국적자의 보호, 제6부 노동자의 보호, 제7부 지역적 인권협약, 제8부 기타 주요 선언 및 원칙 등 총 8부로 구성되어 있다.



국제법판례100선 정인섭 외 / 박영사

서울대학교 정인섭 교수, 고려대학교 정서용 교수, 한양대학교 이재민 교수 3인은 평소 국제법 강의에 있어서 판례의 중요성을 절감하면서도, 한국의 현실에서 이를 실제로 강의에 활용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있었다. 그래서 1년여간 여러 차례의 모임을 통하여 수록할 판례의 선정을 비롯하여 설명의 체재와 방식을 협의하여 이 책을 출간하게 되었다. 이 책은 국제법 학습에 필수적인 약 110건의 판례를 선별하여 그 사안과 핵심적 쟁점, 판결 결과를 한글로 소개하여 학생들이 손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판결문의 영어 원문을 발췌 수록하여 해당 판례가 담고 있는 법리를 직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각 판례마다 간단한 해설과 함께 추가적인 연구를 위한 참고문헌을 제시하였다. 영어가 아닌 다른 언어로 작성된 일부 판례는 영어 번역본을 사용하였다.



최고 지도자 과정



최고지도자과정 제9기 과정

이번 제9기 최고지도자과정은 2008년 9월 2일에 입학식과 오리엔테이션을 시작으로 12월 16일까지 강의를 진행하였으며, 2009년 2월 19일에 수료식을 거행하였다.

이번 과정에도 판사, 검사, 변호사 등 법조계를 비롯하여 교수, 국회의원, 기업 임원 등 사회의 지도층 인사들이 참가하였다. 수료 예정인 수강생 명단은 다음과 같다.

김성원	효성 지원본부 본부장
김태호	KT 혁신기획실장
노행식	(주)씨엔씨프로젝트 대표이사
민보영	(주)비니피오그루지아 이사
박영선	국회의원
박응석	법률사무소 해성 변호사
봉태열	세무법인 가덕 회장
심종두	창조컨설팅 대표
여혁종	STX에너지(주) 해외담당 사장
원일우	대우건설 전무
윤대일	레이크사이드cc 대표이사
윤태석	(주)세종 회장
이만석	삼창화섬(주) 회장
이민영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이석준	삼영화학그룹 부회장
이용성	기흥관광개발 대표이사
장석산	KPIC코퍼레이션 전무
조서환	KTF 부사장
최수현	한나라당 수석전문위원
한승원	한스앤테크놀러지 대표이사

김주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1부장검사
김형남	금융감독원 인력개발실장
문영소	(주)KB금융지주 비서실장
박영래	법무법인 서정 변호사
박영준	(주)빙그레 상무
박종문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소일섭	금융결제원 감사
양일수	삼일회계법인 전무
원기찬	삼성전자 상무
유병용	한국학중앙연구원(정신문화연구원) 교수
윤병천	대한주택공사 상임이사
이근영	강남성심병원 원장
이명숙	(주)예인문화 대표
이상길	신한은행 삼성타운종합금융센터 센터장
이성현	국회의원
이원일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정준	(주)쏠리테크 대표이사
채윤	이수창업투자 사장
하창조	(주)ENI 대표이사
황우엽	한국전력공사 전력수급처장

최고지도자과정 총동창회

지금까지 8기에 걸쳐 배출된 320명의 동창회원을 확보하고 있는 최고지도자과정 총동창회는 서울대 총동창회와 서울법대 총동창회 행사에 참석하고, 최고지도자과정 입학식과 졸업식에 참여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벌여오고 있다.

특히 2008년에는 7월 19일과 10월 11일에 각각 제2회와 제3회 최고지도자과정 총동창회장배 골프대회를 개최하여 회원간의 단합을 다진 바 있으며, 12월 12일에는 라마다 르네상스 호텔에서 송년의 밤 행사를 거행했다.

최고지도자과정 총동창회는 2009년에도 • 동문 상호 간 유대강화를 위한 사회, 문화사업 확대 • 동문 상호간 교류 증진을 위한 내부 시스템 확충 • 재정 자립 기반 확충의 3대 핵심 과제를 달성하기 위하여 노력해나갈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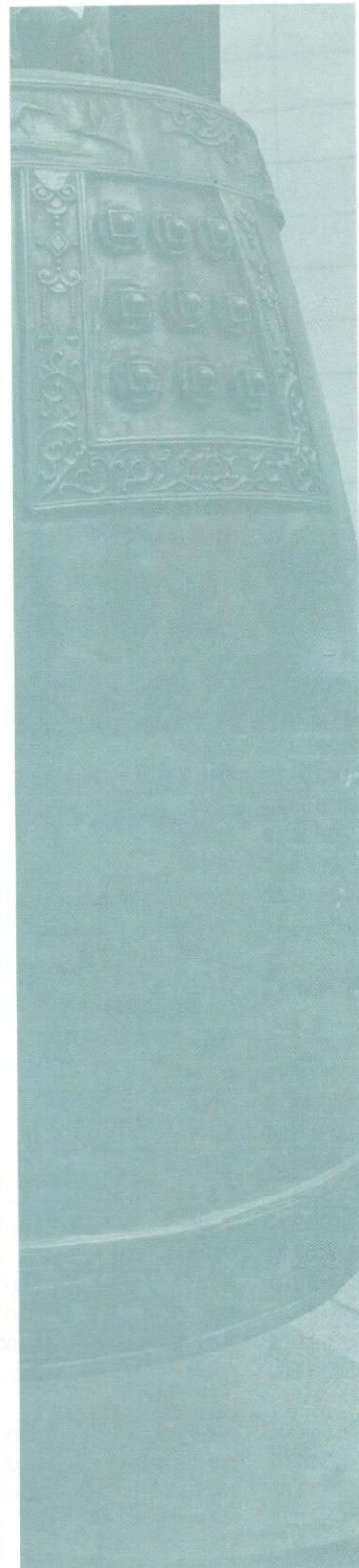
외부과정

금융법정책과정

2008년 8월 27일 입학식을 시작으로 18회에 걸쳐 진행되었던 제1기 금융법 정책과정의 수료식이 12월 3일 거행되었다. 이번 과정에 참가한 수료생의 목록은 다음과 같다.

강권도	법무법인 율촌	미국변호사
신보선	서울보증보험(주)	부장
배호경	신한생명보험(주)	부사장
송영호	중소기업은행	팀장
강종식	법무법인 산경	변호사
김재호	금융감독원	팀장
서성원	법무법인 부일	변호사
장덕희	삼성화재해상보험(주)	부장
구해동	법무법인 청목	변호사
박상진	한국산업은행	팀장
이선신	농협대학	부교수
정연문	오케이메디넷코리아(주)	대표이사
박규식	삼성증권	부장
이승희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
전충수	공정거래위원회	과장
조일래	한국은행	실장

김준교	한국씨티은행	부장
배판규	농협중앙회	부장
서영제	법무법인 산경	대표변호사
이홍제	리딩투자증권(주)	전무이사
고석민	LIG손해보험(주)	차장
박종화	손해보험협회	기획조사부장
임재금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입법조사관(4급)
조명문	농협중앙회	부장
류시관	SC제일은행	상무
김권희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
이재덕	삼성화재해상보험(주)	부장
최영환	한국수출입은행	법무실장
이민호	국민은행	법무실장
임형민	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정준택	금융감독원	팀장
안보용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



전문분야 법학연구과정

M&A의 이론과 실무를 주제로 진행되었던 이번 제26기 전문분야 법학연구과정이 2008년 12월 17일 수료식을 끝으로 막을 내렸다. 이번 과정에 참가한 수료생의 목록은 다음과 같다.

김돈순	(주)아이손씨엔티	대표이사
박오순	법무법인 창조	변호사
윤도식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마금선	(주)하이닉스반도체	차장
박남규	삼성화재해상보험(주)	파트장
서정대	법무법인 아주	이사
송태석	법무법인 오늘	변호사
정인희	서울보증보험(주)	변호사
박용규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
이흔재	이흔재, 양승동 법률사무소	변호사
조민성	월트디즈니컴퍼니코리아(주)	상무
장성관	장성관 법률사무소	변호사
조범규	산은캐피탈(주)	대리
유지연	법무법인 서린	변호사
이윤복	연안알루미늄(주)	대표이사
강동욱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
김규혁	법무법인 케이씨엘	변호사
강종구	(주)머니투데이	차장

박진실	법무법인 베스트	변호사
박영구	법무법인 영진	변호사
최성욱	한국산업은행	차장
주명훈	어울림정보기술(주)	변호사(이사)
백영화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
전기종	(주)효성	부장
양강석	현대증권(주)	팀장
채성용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
김지은	KB투자증권	변호사
조영주	법무법인 평로	변호사
장정환	삼성전자(주)	변호사
권일권	보람공인노무사 사무소	대표이사
윤판성	삼아트론(주)	상무이사
김윤숙	STX Pan Ocean	변호사
신명훈	삼성전자	변호사
신희복	법무법인 우진	변호사
박성준	에버그린 법률사무소	변호사
유영하	유영하 법률사무소	변호사

발전기금소식



2008년 9월 1일 - 12월 22일 기부내역

파란색 바탕으로 표시 된 것은 지난 호 누락분임

날짜	이름	금액	비고
2008.07.21	박상봉	600,000	발전기금 시설
2008.08.14	이점동	600,000	발전기금 시설
2008.08.14	이춘옥	200,000	발전기금 시설
2008.09.01	구본세	50,000	법학발전재단
2008.09.02	권광중	10,000,000	행솔 이태로 기념실 기금
2008.09.04	유철형	5,000,000	행솔 이태로 기념실 기금
2008.09.11	김윤수	1,000,000	발전기금 학술
2008.09.12	김용대	1,000,000	행솔 이태로 기념실 기금
2008.09.12	신동승	1,000,000	행솔 이태로 기념실 기금
2008.09.12	이미현	7,000,000	행솔 이태로 기념실 기금
2008.09.17	이재욱	500,000	행솔 이태로 기념실 기금
2008.09.17	조송이	10,000	발전기금 학술
2008.09.17	법학연구소 기술과법센터출연금	100,000,000	법학발전재단
2008.09.17	법학연구소 금융법센터출연금	200,000,000	법학발전재단
2008.09.25	차재세	5,000	발전기금 학술
2008.09.26	안경봉	100,000	행솔 이태로 기념실 기금
2008.09.29	김이수	500,000	행솔 이태로 기념실 기금
2008.09.29	소순무	10,000,000	행솔 이태로 기념실 기금
2008.09.29	오금석	1,000,000	행솔 이태로 기념실 기금
2008.09.30	문종국	2,200,000	행솔 이태로 기념실 기금
2008.09.30	우창록	10,000,000	행솔 이태로 기념실 기금
2008.09.30	구본세	50,000	법학발전재단
2008.10.01	김철권	1,000,000	행솔 이태로 기념실 기금
2008.10.01	박준	20,000,000	발전기금 학술 금융법센터
2008.10.02	김장법률사무소	250,000,000	발전기금 시설
2008.10.02	신희택	20,000,000	발전기금 학술
			국제통상거래법센터
2008.10.06	한만수	1,000,000	행솔 이태로 기념실 기금
2008.10.07	법무법인 KCL	100,000,000	발전기금 시설
2008.10.09	이창희	10,000,000	발전기금 시설 행솔기념실
2008.10.10	법무법인 화우	100,000,000	발전기금 시설
2008.10.13	김윤수	1,000,000	발전기금 학술
2008.10.13	신동승	1,000,000	행솔 이태로 기념실 기금

이번 학기에도 동문들과 학부모 및 교직원, 기업과 로펌의 기부가 이어졌다. 먼저 10월 7일에는 법무법인 케이씨엘에서 로스쿨 설립기금 출연식을 갖고 1억원을 출연하였다. 11월 8일에 있었던 84학번 홈커밍데이 행사에서는 84학번동기회(회장 한정(주)브링스코리아 대표이사)에서 1억원을 서울법대 로스쿨설립기금으로 출연하였다.

12월 15일에는 최상순 그룹부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한화그룹 법학발전기금 협약식을 가졌고, “한화 김승연 장학금” 양해각서를 체결하여 서울대학교 법학대학원 재학생 중 일정한 자격을 갖춘 우수한 학생에게 인재육성 취지에서 장학금을 지원하기로 하였다.

이외에도 법학연구소의 기술과 법센터, 금융법센터도 출연금을 납입하였다. 김장법률사무소와 법무법인 화우에서도 기부금을 출연했고, 본교 박준, 신희택, 이창희, 최종고, 윤진수 교수(이상 일자순)도 학술기금을 기탁했다.

날짜	이름	금액	비고
2008.10.16	성민경(학부모)	3,000,000	발전기금 학술
2008.10.17	조송이	10,000	발전기금 학술
2008.10.25	차재세	5,000	발전기금 학술
2008.10.28	안경봉	100,000	행솔 이태로 기념실 기금
2008.10.31	구본세	50,000	법학발전재단
2008.11.03	정동욱	1,000,000	발전기금 학술
2008.11.04	이재후	2,000,000	발전기금 위임
2008.11.05	박현문	3,000,000	발전기금 위임
2008.11.06	김학원	1,000,000	SNULawSchool 설립기금
2008.11.07	법대 84학번 동기회	100,000,000	발전기금 시설
2008.11.07	이의영	500,000	발전기금 위임
2008.11.07	최종고	5,000,000	법학발전재단
2008.11.11	김윤수	1,000,000	발전기금 학술
2008.11.17	조송이	10,000	발전기금 학술
2008.11.19	윤동민	10,000,000	발전기금 학술 국제통상거래법센터
2008.11.20	신창수	3,000,000	발전기금 학술
2008.11.21	김상근	10,000,000	발전기금 시설
2008.11.25	이인철	1,000,000	행솔 이태로 기념실 기금
2008.11.25	정선희	400,000	발전기금 시설
2008.11.25	차재세	5,000	발전기금 학술
2008.11.26	안경봉	100,000	행솔 이태로 기념실 기금
2008.11.26	최자석	10,000	발전기금 학술
2008.12.01	구본세	50,000	법학발전재단
2008.12.10	이철송	3,000,000	행솔 이태로 기념실 기금
2008.12.11	강덕화	100,000	발전기금 학술
2008.12.11	관정이종환교육재단	10,000,000	발전기금 학술
2008.12.11	신동승	1,000,000	행솔 이태로 기념실 기금
2008.12.11	양소영	100,000	발전기금 학술
2008.12.17	김동수	10,000,000	행솔 이태로 기념실 기금
2008.12.17	김윤수	1,000,000	발전기금 학술
2008.12.17	조송이	10,000	발전기금 학술
2008.12.22	황의만	3,000,000	발전기금 학술
2008.12.23	윤진수	500,000	법학발전재단